

반복되는 학생회비 논란 신입생 부담은 더 가중

학과마다 회비도 천차만별

학과활동하려면 회비 내야

매년 논란이 되는 학생회비가 올해도 신입생들을 통해 불거졌다.

학생회비는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6000원의 금액과는 별도로 학과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뜻한다. 이는 주로 '학회비'로 불리며 매년 신입생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

문제는 학생회비 금액과 기준이 단과대학, 학과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4년 치 학생회비를 모두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1년치 학생회비만 거두는 곳이 있다. 단과대학 간의 금액 차이도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내 3개 학과(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의 학생회비가 4년 기준 7만5000원 인것에 비해 자연과학대학의 의류학과가 4년간 25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또한 교육대학의 1년 학생회비가 3만원, 해양과학대학 모학과의 1년 학생회비는 14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학회장들은 이에 대해 "한 단과대학 내에 소속된 학과라도 서로 진행하는 행사와 학생들의 규모가 다른만큼 학생회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

다. 아직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입생들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학생회비를 낸다. 학과생활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말에 겁을 먹어 선뜻 돈을 납부하기도 한다.

경상대학교의 한 신입생은 "신입생은 교재비, 학과 행사비 등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다"며 "하지만 학생회비를 안내고 버티면 소위 '뺑질'이 처럼 보일까봐 학생회비 전액을 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4년치 학생회비를 미리 납부한 학생이 전과를 하면 학생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미리 4년치 학생회비를 낸 학생도 다음연도 학생회비가 인상되면 다시 1년치 학생회비를 내는 학생들도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학생회의 예산 인준 과정에도 있다. 학생회가 예산을 계획할때 지난 학생회의 예산안과 감사 자료를 통해 가예산 산출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통해 인준을 받아 학생회비의 사용 권한을 얻는다.

그러나 인준과정에서 전체 공개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입생들이나 기존 학생들은 의견을 내기 어렵다. 또한 학생회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정기총회를 통해 '선 결정 후 인준'식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강수빈 기자

사회상 변화 맞춰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 정비해야

'성적·외국어' 가장 배점 높아

인턴십·연수는 점수 반영 안돼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이 지난 2006년에 개발된 이후로 8년이 흘렀지만, 사회 변화에 맞춰 바뀌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적, 외국어능력, 전공 자격증, 정보화 능력, 봉사활동, 해외연수, 인턴십 등 모든 경력 사항을 학생 개인이 직접 입력하고 점수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전략본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채용추천, 취업지도 등을 하고

각종 기업들에게 학생추천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경력관리 우수장학금도 수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 시장과 사회상의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와 경영학대학 경영관리 프로그램 점수 배점이 총점 1000점 중에 학과 성적 400점, 외국어 능력 300점, 수상실적 100점, 사회봉사·지도교수 면담·정보화 능력·기타에 각각 50점씩 배점 돼 있다. 하지만 해외연수, 인턴십에 대해서는 점수 배점이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민영(언론홍보학과 4) 학생은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해외 인턴십도 6개월 간의 경력을 쌓았는데, 학생경력관리 프로

그램에서 아무런 점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경력점수가 오르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소영(사회학과 3) 학생도 "학생들의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경력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고, 이에 맞춰 배점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의 점수 배점은 2006년 제작 당시 각 학과 교수들이 전공 특성에 맞춰 배점을 조정했다. 우리대학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표명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은 정작 사회상과 동떨어져 있다.

우리대학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은 대외

활동, 인턴십 등 보다 학과 성적과 외국어 점수 등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취업 동향은 대외활동과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학과 성적과 외국어 능력에만 치중돼 있는 점수 배점은 학생 '경력' 관리 프로그램 보다는 학생 '성적' 관리 프로그램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

배점 수정 유무에 대해 정익권 취업전략본부 실무관은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단과대학과 학과별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며 "앞으로 자격증 추세와 채용 시장 변화에 따라 점수 배점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봄이 왔어요' 23일 봄 기운이 완연한 아래캠퍼스를 찾은 어린이들이 제2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다. 이날 본관 주변 잔디밭과 사슴상 주변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찾아 주말을 보냈다.

박소연 기자

교내 순환버스 도착시간 설치, 학생들 호응

유학생 위한 영문 노선안내도 지원

교내 순환버스 정류장마다 버스운행시간표가 새로 생겼다.

17일 정문 운행시간표에는 각 노선이 지나는 정류장의 순서와 운행시간이 게시돼 있다. 또한 교내에 있는 모든 순환버스 정류장에도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게시됐다.

버스 도착시간표 부착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기령(생물학과 2) 학생은 "기존 시간표는 정문에 출발시간만 표시돼 각 정류장

에 언제쯤 도착할지 예상하고 막연하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김인철 총무과 실무관은 "예전에도 정류장마다 시간표가 있었으나 표기와 도착시간이 차이가 날 경우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일부 학생들의 행동이 문제돼 사라졌었다"며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을 하는 학생은 소수였고,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정류장에 버스 도착시간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선안내도에 영문표기도 추가됐다. 외

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각 정류장의 노선안내도에 영문표기가 추가해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과학대학 4호관 앞 정류장 노선이 점선표시로 변경됐다.

김인철 실무관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편의상 노선을 없앨 수 없어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와의 논의 끝에 이들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총 8개의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런 상황에 다른 노선과 같은 표시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점선표시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버스 운영업체에서 해양과학대학 4호관 앞은 대형버스를 돌리기에겐 비좁은 공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소연 기자

‘진짜’ 총학생회 19일 출범

학생회관 로비·한라터에서 열려



이날 오후 6시 학생회관 로비에서 출범식 고사 가 열렸다.

제46대 진짜 총학생회(회장 고광표 경영4, 부회장 김무송 법학부 3)의 첫 걸음마가 시작됐다. 진짜 총학생회 출범식은 19일 오후 학생회관과 한라터에서 진행됐다.

출범식은 △아침정문인사 △부스 운영(취업플랜 부스, 정책설명 부스, 포토존, 대동제·월드컵 아이디어 모집 부스, 플스 게임 UFC, 타로 부스, 옷 만들기 체험 부스) △식전 오프닝 △오프닝 행사 △단대별 장기자랑 △출범식 고사 △음복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한편 단대별 장기자랑은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행사가 진행된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 강의의 수강하는 데에 불편을 주었다는 것이다.

유주연 기자

실천하는 삶을 위한 특강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의 성공과 행복한 삶의 실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소기념 특별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내일의 꿈과 희망을 위한 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1. 일 시** : 2014년 3월 27일(목) 15:00~
- 2. 장 소** : 문화교류관(박물관) 2층 세미나실
- 3. 강연주제** : 나의 인생,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대학생의 발달과정
 - 삶의 목표
 - 마음 관리
 - 깨어있는 삶
 - 실천할 수 있을 때 참다운 인생이 가능하다.
- 4. 강 사** :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제주대 명예교수, (前)한국상담학회 회장

-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



사 설

총학생회에 바란다

지난해 우리 학교는 80%에 육박하는 선거참여율을 보이며 총학생회장을 선출하였다. 선거참여율로 미루어보건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큰 것 같다. 학생들은 학생회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학생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부응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학생회가 하는 활동이 소속 학생들의 요구와 거리가 생길 때 학생회는 유명무실해진다. 구성원들의 요구 이외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학생회는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자치기구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학생회는 오늘날 대학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14년 출범한 ‘진짜’ 총학생회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수업권, 생활권, 문화권을 보장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많았다. 이런 어느 학생회들보다 실현가능한 공약, 평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한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그렇다고 해서 총학생회의 공약이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란 지속적인 사회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적 자산을 산출해야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대학이 시대 변화를 읽어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대학은 시대적 특성에 맞추어 산업화, 민주화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으나 오늘날의 대학은 방향성을 완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대학의 역할을 굳이 찾자면 취업학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학생회는 우리 대학의 지향점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교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공약사항들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회는 오늘날의 대학이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학문단위 조정, 학사제도 개편 등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문단위 조정이란, 단편적으로는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가 통폐합되어 어느 날 학과명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 이 때 학생회는 통폐합되는 과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는 수업권 보장’이 지금 학생회가 제시하고 있는 강의평가, 강의계획서에 대한 공약 사항 실천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 속에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밑그림이 반드시 그려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학생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어렵다.

학생회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민감한 촉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학생들과 밀착도를 높여 학습권, 생활권, 문화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진짜’ 학생회만이 아니라 2015년을 책임질 학생회, 그 이후의 학생회에서도 공유할 비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디 새롭게 출발한 학생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학생들의 기대가 일치하여 이번 학생회의 임기가 끝나는 날에 긍정적인 평가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피아노 연습실 개방시간 단축... 학생들 불만

학생들 “24시간 아니라도 연습 위해 시간 연장해야”

학교측 “피아노 관리·에너지 절약 위해 운영 제한 불가피”

교육대학이 이달 3일부터 예술관 4층 피아노실 운영방안을 종전 완전 개방에서 제한적 개방으로 바꿔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대학 피아노실은 이번 개편 전까지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개방·운영됐다. 하지만 이달 3일부터 피아노실 운영방안이 토·일요일은 전면폐쇄하고, 주중에만 오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대학 학생들의 피아노 연습은 예비초등교사로서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주중 또는 주말에 학교 피아노실을 찾아 연습한다. 따라서 피아노실 운영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학교당국의 처사를 이

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이상 피아노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개방을 제한한 후에는 연습 시간이 부족해 답답하다”면서 “피아노실을 음악과 학과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학과 사무실이 부재중일때는 몇차례 헛걸음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4시간을 개방해서 전기세의 부담이 많아진다면 연습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이 아닌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이용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효진(초등교육학전공 3) 학생은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학교측의 피아노실 통제를 비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아노실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니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방안을 마련했으



연습실 시간 제한으로 수업시간을 피해 9시부터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한 학생

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대학측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피아노실 운영 관계자는 “피아노실의 에너지 낭비가 심해 이

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점점 대학예산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학교도 이에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교육대학이 공공요금으로 1억2000여만 원을 지불했는데 밤새도록 켜져 있는 조명과 난방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학생들이 피아노실 사용 후 제대로 뒷정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피아노실이 24시간 연중 개방돼 교장난 피아노가 늘어나 이를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다면서 학교시설의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외에 불가피하게 피아노실을 이용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공식적이고 정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피아노실을 개방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연 기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올해 12개 대학 신규 선정

총 26개 대학에 573억 지원

재진입 대학과 경쟁이 과제

19일 교육부가 '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11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25개 대학이 학부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올해 대상은 기존 지원 대학 14개교와 올해 신규 선정 대학 12개교를 포함해 총 26개교가 선정된다. 선정된 26개 내외의 대학에는 올 한해

573억원이 지급된다. 우리 대학은 2010년부터 이 사업에 지원했으나 매년 고배를 마셨다.

신규 선정 대학은 수도권 4~5개교, 지방 7~8개교 등 총 1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액은 1개교당 평균 23억원 수준을 지원하되 대학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이번 선정에 걸림돌은 2010년에 선정됐던 재진입 대상 11개교이다.

김성철 평가팀장은 “우리 대학은 대규모 지방대에 속해 최종 선정 2~3곳 안에 들어야 한다”며 “학부 교육의 체계적인 기획을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단계 서면평가를 통과

하면 재진입 대학과 경쟁을 붙여야 한다”며 “이들 대학은 기존 ACE대학 선정에 노후가 있어 경쟁에 앞서 있다”고 말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그 이름값 때문에 많은 대학이 눈에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 사업 선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철 팀장은 “13일부터 교수 6명과 연구원 1명으로 연구팀 꾸려 5월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획하고 있다”며 “27일 대전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해 동향을 살피는 등 선정에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와 2

단계 현장평가 그리고 3단계 최종심의로 이뤄진다.

한편 교육부는 ACE사업을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 이행여부에 따라 선정평가 점수 100점에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총점 3점 만점으로 환산해 이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이밖에도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 3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4점을 반영하고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자체노력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액을 감액할 방침이다. 강경태 기자

제주교대 배구동호회, 제민기 동호인부 우승

창단 이후 첫 우승... 3승 1패로 젊은 패기 돋보여

제주교대 배구동호회(단장 이승환 초등체육교육전공 3)가 제25회 제민기제주도배구대회 동호인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제민일보사(대표이사 백승훈)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배구협회(회장 홍병익) 주관으로 열렸다. 대학 순수 동아리회원들이 호흡을 맞춘 제주교대 배구동호회는

이날 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했다. 이들은 결승전에서 준우승팀 제주시배구동호회를 격파, 창단 후 첫 우승을 손에 쥐었다.

이번 대회는 관공서부, 동호인부 학생부팀이 각 부별 풀리그를 펼쳐 경쟁했다. 한편 제주교대 배구동호회는 1998년 창단된 순수 대학동아리팀으로 구성된 학생팀이다.

강수빈 기자

이윤우 삼성전자 고문 초청

‘CEO에게...’ 세 번째 강의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미래기술로 알아본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21일 공과대학 4호관에서 강연했다.

이윤우 상임고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 43년간 삼성에서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 왔다.

올해 세 번째 강의를 맡는 ‘CEO에게 듣는다’는 취업전략본부가 운영하고 있다. 유주연 기자

문화광장, 극단 가람 초청

연극 ‘동치미’ 공연

문화광장이 26일 오후 2시 아라뚝즈홀에서 극단 가람(대표 이상용)을 초청해 연극 ‘동치미’ 공연을 연다.

‘동치미’는 2009년 초연 이후 3년간 대학로 연극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연극은 원로 시조시인 김성옥씨가 60여 년간 해로했던 부인을 잃은 후 6일 만에 세상을 떠난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강수빈 기자

‘지오기프트’ 공모전

대상에 유은진 학생

유은진(멀티미디어 디자인전공 4) 학생이 19일 제주관광공사 주관한 ‘지오기프트’ 디자인 공모전에서 ‘Geo Patchwork(지질 조각보)’로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주상절리의 기둥을 활용한 ‘지오 텀블러’를 디자인한 U팀(팀장 고동유 멀티미디어 디자인전공 4)과 주상절리의 모양을 우산에 넣은 ‘주상절리 우산’을 디자인한 이경주(성신여대) 학생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30여개의 작품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차 디자인 및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0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지오기프트’ 공모전은 제주도 지질의 특성에서 디자인된 창의적인 기념품을 추구하며 실용적인 상품을 통해 지역을 대표할 관광 기념품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디자인은 세부수정을 통해 상품화 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지질공원핵심지질명소인근 주변에서 판매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김보라 기자

김한길·안철수 대표

24일 토크콘서트 열어



세정지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4일 오전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들의 고민과 질문을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하는 조언부터 정치관,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토크 콘서트 후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구내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같이하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어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세정지민주연합 제주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강수빈 기자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제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5.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16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제62기 수습기자 모집

1.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모집대상 :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 모집기간 : 4월 3일 (목)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접속 후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첨부파일)을 받아 작성. 제주대신문 편집국(취업전략본부 3층)에 제출

2. 기타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입사동기) 1부
칼럼(자유주제) 1부

3. 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지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중앙 언론에서 활용하는 편집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제주대신문 학생기자 출신 도내외의 주요 언론사 취업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현재 일본 오사카, 도쿄, 오키나와, 중국, 필리핀, 라오스, 미국, 몽골, 대만, 베트남 등 현지 취재)

4. 면접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 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5.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문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제주대신문

www.jnuri.net



제주를 여는 창!
jnuri

인터넷 뉴스 & TV

제보 및 문의 : 064-748-3883

FAX. 064-748-3882

E-mail. jnuri@jnuri.net

운전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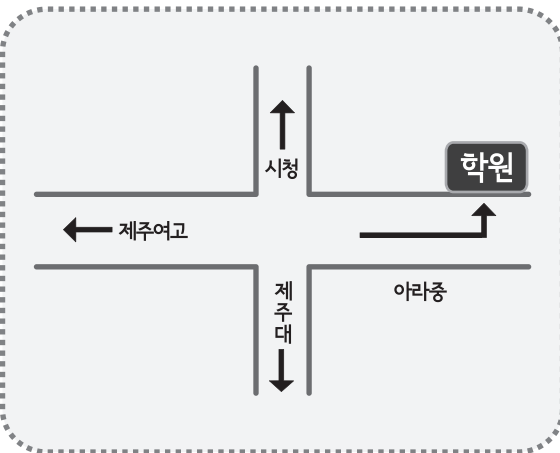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 ↔ 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교수시론



고성준
윤리교육과 교수

“
통일을 소극적 또는 무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자세를 벗어나
통일은 필수이며 기회라는
생각으로 대학생활을 준비하자

”

제주대 식구가 된 신입생들을 환영한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설계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대학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 미래 역사를 이끌 주역 즉,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도록 훈련하여 사회에 진출시키는 선택적 고등교육기관이다. 여러분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살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소양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활동할 시기는 앞으로 적어도 4년에서 10년 이후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거꾸로 내려다보는 안목 즉 ‘逆時間的 時角’(역시간적 시각)’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당부하고 싶다.

그래야 현재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데 대하여 스스로 답을 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미래로 가는 길목이란 점도 잊지 않아야 바른 역사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활동을 시작한 10년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통일한국’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무척이나 낯선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통일은 가깝게 다가온

제대생과 逆時間的 時角 그리고 통일

〈역시간적 시각〉

상대다. 세계적으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행한 강연에서 “4~6년 내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는 다이나믹한 경제강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 될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정상급 지도자들의 회의에서도 한반도 통일은 기정사실이며,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고 얘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특별연설을 통해 다가올 한반도 통일은 한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모두가 대박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유럽배낭여행을 계획한다면 비싼 항공기를 이용해야하고 2~3곳을 갈아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철도를 이용해 가격이 싼 기차로 중국, 시베리아를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 규모도 프랑스와 독일만큼 커지고, 일본을 따라잡을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렇듯 향후 10년 후의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는 ‘통일한국’으로 인해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제주도도 ‘통일한국’에서는 더욱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입생 여러분들이 다가올 ‘통일한국’이라는 미래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바람직한 그 모습을 위하여 어떤 지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지자체들도 통일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통일을 소극적 또는 무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고 대박이자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통일한국에서 주역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대학생활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통일과 북한의 미래관련 강화를 열심히 찾아 나시고, 책과 논문을 열심히 읽으며 ‘통일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힘을 기르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화합·상생, 배려의 봄을 누리자

동문칼럼



안창홀
행정학과 78학번
『생명평화 제주시대』
편집국장

동아리들의 소개 구호들이 멋집니다. 각종 시현에 합격한 학우들을 축하하는 단대별, 학과별 인사 글도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던 석사 과정에 다시 등록하여 최근 몇 주간 교정을 거닐면서 새삼스레 느껴보는 가슴 두근거림이며 기쁨 들입니다. 아직 가슴 설렘이 가시지 않았을 새내기들이든 취업준비에 돌입해 있는 졸업한 후배들이든 젊음을 구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30여년전 아라뱃 교정에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니까요. 1980년부터 1983년 사이 대학시절, 알알이기는 했으나 열정을 바쳤던 시기였다고 기억합니다. “Dream, Passion을 잃지 말라”고 다독여주던 선배들의 격려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암호처럼, 주문처럼, 자기취면 같이, 계업령 여파로 잠시 수업을 받지 못하던 시간들도 생생하지만, 광주 금남로 YMCA회관 인근의 어느 화합실에서 열린 전국 학생편집자 모임에 대표로 참석해 동료와 더불어 ‘아침이슬’을 목 놓아 불렀던 그 순간은 영영 잊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들 역시 지금은 훨씬 다양해지고 무척 풍성해졌으리라 짐작합니다. 30여년전 당시에 동행취재했던 SCI의 환경면 산양리 농활이라든지 YMCA 봉사활동, 탐험반의 해학과 신명, 대학문학부를 신세대의 시극, TIME반과 아카데미 등의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의미 있게 떠오릅니다. 거기에 젊음이 녹아 있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배어 있었다고 여겨지면서요. 학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의 이상과 취미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해 활동할 것을 권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배려와 화합, 상생의 가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성을 바람직하게 길러 나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기대도 함께 합니다.

학생자치기구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전은 치열했으나 민주적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선거판의 모습은 얼마나 추한가요. 우리가 화합과 상생, 배려의 정신을 힘써 배워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렇게 진흙탕 같은 혼돈과 갈등, 분열의 정치를 세심하게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우리 사회의 리더를 가려 뽑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어떠한 선거, 어떠한 정치적 다툼이든지 승리는 조직과 돈의 규모에 있기보다는 유권자인 국민, 도민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 팁으로 드릴까요?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을 일삼는 후보라면 아예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구린데가 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0년을 정치판에서 일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 젊음, 아름답고 좋은 봄날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누리고 펼쳐나가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사회의 틀을 깨며 살라는 키팅 선생님

독자기고

양혜연

초등윤리교육전공 2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고 현 교육의 좌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사고를 장려하는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과 청사진을 내 스스로 그려봤다.

잠시 영화속으로 들어가 보자. 웰튼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을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명문고등학교였다. 이 학교는 전통과 규율을 엄격히 여기며 교육의 목표 역시 명문대 진학이다. 그러나 이런 학교에 자유로운 사고를 중요시하는 키팅 선생님이 전근을 오면서 학교의 분위기는 변한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키팅 선생님의 시 수업이었다. 교재 앞 부분에 적힌 시를 평가하는 부분을 찢으라는 키팅 선생님의 말이 나옴에 현 교육을 꼬집는 듯 들렸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정답이 없으니 내가 생각하는 데로 다 말하고 대답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점점 입시전쟁에 들어서면서 획일적인 답을 추구하게 됐다. 영화의 장면은 개인의 개성을 짓밟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떠올리게 했다.

이를 보면서 나도 아이들에게 칼 같은 답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았다. 학생들에게 틀에 박힌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사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고 부모나 교사의 말만 따른다보니 결단력이 부족해진

것 같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자유로운 사고를 추구하는 데에도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대표적인 예를 영화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날이라는 학생이다. 키팅 선생님의 열정과 자유로운 사고를 이어받은 날은 자신의 꿈을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아버지의 반대에도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 키팅 선생님은 이런 날의 죽음에 슬퍼한다. 그는 날의 죽음을 슬퍼함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증오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상황은 교사에게 무척 힘든 점일 것이다.

내가 교사가 된 후에도 내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 분명 올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가치관과 이념에 회의감이 오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도 교사의 몫이라 생각한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투영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나는 키팅 선생님의 실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너무 투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아이들은 교사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낚시와 토트처럼 교사에 따라서 학생의 인생과 앞으로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에게도 어제나 내일보다 더 가치 있는 오늘을 즐기고 열심히 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언제나 지금의 자신이 중요한 것이다.

선택과 책임을 질 기회, 학생들에게도 주어져야

이원재

언론홍보학과 1



교육이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교육은 명문대학 진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케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의미는 다르다. 교육이란 훌륭한 지적 능력을 갖춘 엘리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교육을 ‘입시 경쟁 교육’이라고 평했다. 입시는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만을 살피우게 하고 정신을 메마르게 한다.

‘결핍’.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이 결핍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결핍되기 위해 교육받고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보다 박탈이란 단어가 더욱 잘 어울릴 것 같다. 교육체제에 이미 구속당한 우리는 구속된 자야를 풀어낼 의지마저 박탈당했다. 게다가 우리는 꿈을 꿀 시간이 없다. 초등시절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갖고 있었지만 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꿈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밤낮없이 교과서와 참고서를 암기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대학에 떨어져 사회의 낙오자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자율성이 속박된 채로 수년간 기계처럼 공부해 온 학생들에게 대학만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라며

이끄는 획일화되고 강압적인 교육은 고쳐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앞만 보고 달려가라 가르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나의 길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그런 시설은 있다하더라도 학생과의 심적 거리가 멀어 생각을 허심탄화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또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시설 역시 필요하다.

학생들을 자라나는 꿈나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 칭하면서 회색빛 건물 안에 몰아넣고 너의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은 포기하라는 것은 잔인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은 작은 어른이다. 우리에게도 책임져야 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이 공익광고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학부모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 자식이 천대받으며 살아갈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은 부모 또한 아무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학부모가 아닌 부모가 돼서 평등한 교육환경과 편협한 사고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간다면 소중한 아이들이 천대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로컬뉴스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도민 공청회 28일 개최

한삼인 제주대학교 교수 포함한 전문가 토론회도 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3월 12일자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도민 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3월 28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열렸다.

이에 포함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보수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 제주지역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운을 통해 육지부로 운송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여행 기회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의 파급효과가 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비나 협약 미 가입국 관광객의 도내 운전허용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중국인 등) 운전허용 특례’ △ 해양 레저 관광활성화와 도내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제주해역에서 낚시어선으로 스낵스쿠버 다이빙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어선 스낵스쿠버 다이빙 승선허용 특례’ △ 개별사업 사업승인 신청 시 도민 우

선 고용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에 도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발 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시 기능강화 및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과제 △자치경찰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경찰 통합금지 조항 부’ 과제 등도 안건에 올랐다.

한편 그동안 법조문이 복잡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장·절·체계정리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는 등 전부개정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관광진흥금지 신규제원 발굴 △꽃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 등 2개 과제는 추가논의 결과에 따라 과제 수용여부가 확정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사업

설명회 통해 의견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월 18일 오후 2시 도청 한라홀에서 도내 대학과 특성화고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남호 교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기본개념과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사업 유지 전략과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역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활동이 부족한 현실을 논했다. 동시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를 통해 산학융합 R&D 및 교육시설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상황 설명에 이어 가진 의견개진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학업을 연계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제주지역에 유치된다면 보다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주학 자료 관리·보존할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제주학아카이브가 구축된 홈페이지의 모습.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1C 디지털 시대에 제주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인 ‘제주학 기록관 제주학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고문헌, 세미나자료 등 연구물과 사진, 동영상, 구술 등 2544건에 상당하는 제주학 자료를 구축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3월 17일부터 http://www.jst.re.kr 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구축 자료로는 △규장각 소장 고문헌과 지도 55건 △제주학 연구물 970건 등이 있다.

그동안 제주학 자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학자 또는 사진가 등 개인별로 수집 보관되는 경우는 분산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커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은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됐다. 이에 제주학 지식자원의 선진화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신규 직원 7명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공모에 이어 직원 7명을 신규 채용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원 출범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3월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7명으로 연구직 2급 1명과 3급 5명이며 사무직은 4급 1명이다. 응모자격은 연구직인 경우 전국 공모하며 사무직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업소장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응용자격은 △연구직 2급 해당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직 3급 해당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사무직 4급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 등이다.

응모기간은 오는 3월 31일부터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를 받으며 마감일은 4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할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정책제안 발표 및 직무능력필기평가, 3차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심사에서 3배수 선발하고, 2차 심사서 2배수 선발하며 3차 면접심사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한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성과 가족의 정책 정책연구 및 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제주도민 청렴지킴이’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민 청렴지킴이’ 신청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해 추가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민 청렴지킴이’는 올해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반부패·청렴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시, 그리고 각종 청렴시책 추진과 대외 홍보 활동, 공직부패사례 제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는 지킴이들을 위촉하고 3월 18일까지 공모했다. 하지만 지원 인원이 당초 모집인원에 못 미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시민·사회단체 회원, 대학생 등 만 20세 이상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활동기간은 14년 4월부터 15년 3월까지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 수여, 학생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등의 혜택이 있다.

제주도 청렴총괄담당 관계자는 “도민들을 위해 봉사할 ‘청렴지킴이’는 청렴실천도민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leanjeju@korea.kr) 또는 방문 접수(도청 청렴감찰단) 등을 통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정리=강수빈 기자

초·중·고 연계 특별활동 강화
박물관의 독특한 문화상품 개발

인터뷰 허남춘(국어국문학과) 박물관장

▶취임소감은.
“아직 박물관이 옮겨진 지 오래되지 않아 제주대 구성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박물관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자 쉬어가는 문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이전 관장께서 현재의 격식 있고 현대적인 박물관의 기반을 다졌다. 이를 이어 받아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민들과도 호흡하는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박물관 설립 목적과 우리 대학 박물관만의 특징은.
“박물관은 조상들의 삶의 자취와 과거를 모아둔 곳이다. 과거를 바라보며 현재를 기쁘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박물관이 설립됐다. 또한 우리 대학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제주 민속을 알리고 제주 문화가 지닌 가치를 알리는 데 강점이 있다.”



연구 기반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가칭 ‘제주인의 날’ 행사 준비

인터뷰 김동전(사학과) 재일제주인센터장

▶재일제주인센터 사업 방향을 큰 틀에서 설명한다면.
“대학에 있는 센터의 생명력은 연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일제주인 관련 조사 및 연구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구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 속에서 국내외의 재일제주인 관련 연구자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결집시키고, 서로 공동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재일제주인 1세대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재일제주인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나 구술 채록, 그들이 남긴 다양한 일기, 회의자료 등의 문헌 자료,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해 연구기 초자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제주를 방문하는 재일제주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오사카, 도쿄 교민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대학 홍보뿐만 아니라, 센터가 교민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

▶재일제주인 연구를 위해 일본 대학과 연구소, 현지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상호협력 관계가 중요할 것 같다.

“재일제주인뿐만 아니라 연구소간의 상호협력은 필수적이다. 연구소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 특히 일본에서 재일제주인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자 모임, 개인 연구자들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일동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도내 대외기관과의 협력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협력과를 중심으로 재일 동포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일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 평화협력과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재제주 일본총영사관과도 실질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해 공동사업을 실시하겠다. 탐라문화제 기간 등 재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제주를 방문하는 일자에 가칭 ‘재일제주인의 날’을 지정하여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대학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재일제주인센터는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재일동포들이 그동안 고향에 보여주었던 헌신과 사랑을 기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물론, 고향을 잘 모르는 3·4세대에게 고향의 참모습을 알리고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언어·문화 교육과 교류를 통해 재일제주인과 제주도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도 센터를 방문하여 재일제주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전시한 ‘재일제주인실’을 꼭 관람했으면 한다. 나아가 재일제주인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 등의 기증을 적극 환영한다.”

정용복 팀장

정세성·존재감 찾기에 최선
대학과 지역의 ‘공동체언론’ 추구

인터뷰 최낙진(언론홍보) 신문방송사 주관

▶취임 소감은.
“언론홍보학과 교수로서 신문방송사 책임을 맡게 되니 부담이 더 크다. 대학 신문방송사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을 포함 전국의 대학언론들이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간교수 임기동안 우리대학 신문방송사의 ‘정세성’ 확립과 ‘존재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기의 대학신문이 나아갈 방안은.
“대학신문 위기의 본질은 독자들의 무관심과 이탈이다. 독자가 있는 신문에는 위기가 없다. 독자들이 대학신문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신뢰감 있는 뉴스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그 해답이다.

이와 함께 대학신문은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지금은 그에 버금가는 ‘신 구텐베르크’ 전자혁명의 시대이다. 대학신문이라고 해서 이도도한 흐름을 피해갈 수가 없다. 기존의 기획, 취재, 편집, 배포 방식에 대한 일대 점검과 과감한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신문방송사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할 때이다. 대학이 지역으로, 지역이 대학으로 서로 넘나들어야 한다. 상호간 소통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신문 배포와 방송의 송출 영역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아라·사라 캠퍼스의 교문 인근 동네, 신·구 병원 앞상가, 대학로 등이 취재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첨단과학단지도 포함하고 싶다. 이 지역들은 우리대학과 뗄 수 없는 학습, 문화, 생활의 공동체 공간이다. 제주대 신문방송사는 대학과 지역의 ‘공동체 언론’을 지향한다.”

▶어떠한 신문방송사를 만들고 싶은가.

“신문방송사의 기본은 저널리즘이다.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생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문은 감시와 견제, 방송은 위로와 대학문화의 생명력 유지, 영자신문은 해외를 향한 학교 홍보 등 각각의 역할들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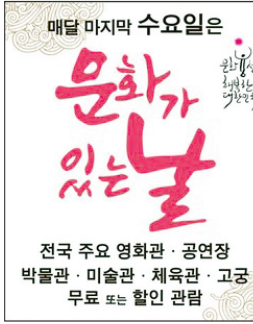
또한 내적으로는 학생들이 기자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신문방송사를 만들겠다. 신문방송사가 대학에 존재하는 이상, 교수로서 학생 기자들에 대한 교육의 책무도 중요하다. 학생 기자들의 학습과 실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 신문방송사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될 거라 믿는다.”

▶독자들에게 한마디.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대학신문과 방송의 주인공은 독자 여러분이다. 신문방송사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독자들께서도 우리 학생기자들의 친구가, 멘토가 되어 주길 바란다.”

강경태 기자

풍성한 문화가 있는 수요일 ‘매·마·수’



바쁜 일정이 끝난 수요일 저녁, 그냥 잠 들자니 아깝고 무언가 하자니 ‘할 게 있나?’ 싶다. 이런 당신을 위해 매.마.수가 있다. 매.마.수는 ‘매주 마지막 수요일’의 준말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을 말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산업 활성화 유도과 국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박물관, 미술관, 극장 할인 등이 적용돼 국립문화시설을 무료관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다양한 혜택을들 지나치고 있다. 혜택으로는 우선 영화관을 말할 수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에서는 당일 저녁 6~8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를 5000원에 즐길 수 있다. 또한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는 도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

국공립 극장에서의 공연은 50~60%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전국 국공립 도서관 또한 야간개방을 확대한다.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까지 높일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제주 도내 관광지의 박물관 할인 등 특별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인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국·공립이 운영하는 박물관들은 무료로 관람가능하다. 평소 비싼 입장료에 망설이고 있다면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번 달의 문화가 있는 날은 26일 수요일이다. 점차 완연해지는 봄 날씨에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면, 혹은 지친 평일하루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문화에 빠져보자.

김보라 기자

>> 매·마·수(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혜택

영화관	(상영 영화 1회분에 한함) CGV 18:00~20:00 영화관람료 5000원 롯데시네마 제주 18:00~20:00 영화관람료 5000원
공연장	제주 난타 전용관(PMC 프로덕션) 난타 : 전좌석 50% 할인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해라) 판타스틱 : 전좌석 1만5000원 제주국제공항 11:00/14:00 도립무용단 공연축제 공향극내선대합실 한라아트홀 페인터즈:하어로: VIP석, S석, A석 10인이상 관람 60% 할인 제주문예회관 18:00 '사랑나눔콘서트<오, 해피데이>' 문화소외계층 초대권 배부
박물관 미술관	도개비공원 당일 무료 성안미술관 당일 무료 화석박물관 관람료 무료 러브랜드 미술관 당일 무료 본태박물관 관람료 30% 할인 포토갤러리자연사랑 당일 무료 제주허브동산 관람료 20% 할인 제주유리박물관 관람료 10%할인 김영갑갤러리 두모악미술관 당일 무료 제주민속박물관 관람료 50% 할인, 교육체험료 50% 할인 제주문예회관 <고남수 사진전> 작가 상주, 전시작품 설명 및 작가와의 대화 왈츠미술관 일반: 5000원 → 4000원 / 도민, 학생, 군인, 노약자: 3000원 → 2000원
도서관	야간개장 제주시: 애월도서관, 우당도서관, 조천도서관,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한라도서관 서귀포시: 동부도서관, 삼매봉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서부도서관, 성산일출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중아도서관, 표선도서관
기타문화공간	제주 목관아 1500원 → 무료 제주 삼영동 유적 700원 → 무료 제주돌문화공원 5000원 → 무료 생각하는정원(분재예술원) 관람료 10% 할인 영상문화예술센터 오후 3시(센데드라인), 오후 7시(왕의 춤)무료상영 오라동주민센터 오후1시~2시 30분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영화 상영

>> 새로운 책

지역의 삶 녹아있는 ‘제주도시 건축’ 이야기
집들이 아닌 인간들의 결합체 도시 지향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

김태일 지음 | 제주대학교출판부 |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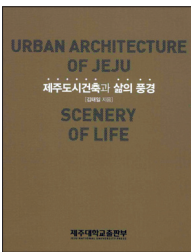
김태일(건축학부) 교수가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을 펴냈다.

김 교수는 제주에 정착하며 생활하는 동안 제주의 도시와 건축과 관련해 연구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5년 첫 출간 이후 7번째 제주도시 건축관련 도서를 출간했다.

그는 저서를 통해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를 더욱 의미 있고 값지게 하기 위해서 도시건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물리적 환경과 삶이 녹아 스며든 아름다운 풍경이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책은 7가지 세부주제로 구분돼 도시건축의 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도시건축과 생활환경, 변화되는 풍경과 개발 콤플렉스, 도시건축과 문화공간, 삶과 추억, 기억의 공간, 제주도시 건축의 미래로 구성됐다.

이 요소를 모두 별개가 아닌 상호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도시건축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할 때 좀 더 먼 시각으로 많은 사항들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제주사회의 현실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안타까워한다. 김 교



과 조직 자체다. 도시는 오랜 변천과정 속에서 다양한 삶과 문화적 가치들이 축적돼 형성한 결과이기 때문에 도시는 단순히 설계나 도시화된 계획, 건물의 유무에만 절대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한다.

생태도시, 안전도시, 녹색도시,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끊임없이 이뤄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역 곳곳에는 넓은 도로가 건설되고 수많은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이 운영된다. 김 교수는 이 시설들을 통해 제주도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반문한다.

수는 책을 통해 자신이 제시하는 작은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행정의 정책에 반영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과 문화를 가진 지역의 성장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도시는 집들과 집들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라, 인간들의 집합체, 즉 인간사회의 생활

고전과 최근의 이데올로기 조망
이데올로기 논쟁점 서술한 정치입문서

사회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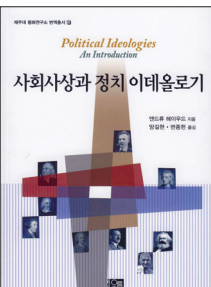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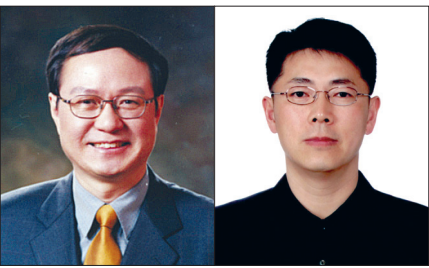
양길현·변종현 옮김 | 오름 | 2인3000원

양길현(윤리교육과, 사진 왼쪽)교수와 변종현(초등윤리교육전공)교수가 ‘사회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 역서를 출간했다.

현대 세계의 정치는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전통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실재를 규정하고 평가하며 또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요한 원천이다. 앤드루 헤이우드(Andrew Heywood)가 쓴 이 책의 주요한 장점은 그가 이데올로기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또 고전적인 서구 이데올로기들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 서술한 아니라 최근의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방향과 새로운 논쟁점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대혁명에 기원을 두고 있는 서구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을 다 소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서구적 전통의 정치사상도 담아내고 있다. 여전히 이데올로기는 필수적인 전통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주요 용어와 내부적 발전을 이해하는 능력은 현대 세계를 사는 시민에게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정치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



gies)의 초판은 1989~91년 동유럽 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쓴 것이다. 회고해 보면 ‘공산주의의 붕괴’는 많은 점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중요한 정치적·역사적 발전들의 발현이자 그 촉매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종족적 민족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의 대두, 포스트모던 내지는 ‘정

보’ 사회의 출현, 미국 지배의 단극적 세계 질서의 등장, 세계적 테러의 개시 등을 들 수 있다. 역사는 한기증이 날 정도로 가속화되는 듯싶다.

궁극적으로 탈이데올로기화된 또는 소비주의적인 정치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강경태 기자

제주언론인클럽 15년 역사 집대성
광복 이후 제주언론사 약술

제주언론인클럽 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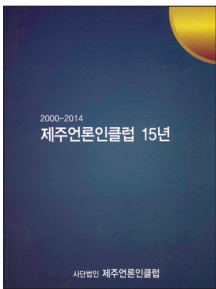
제주언론인클럽 | 경신인쇄사 | 비매품

제주언론인클럽(회장 홍영표 전 제민일보 사장)이 ‘제주언론인클럽 15년’을 펴냈다.

제주언론인클럽은 ‘제주 언론문화의 창달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2000년 3월 창립했다. 발간사를 통해 언론 현장에서의 바쁜 용기가 굴절되지 않도록 힘이 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제주언론인클럽 15년’은 2000년 이래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 언론의 이모저모를 살폈다. 제주의 언론, 창립과 운영, 활동과 성과, 그 날의 취재 현장, 작고 언론인의 발자취, 현안과 대안 등을 담고 있다.

‘제주의 언론’에서는 과거 언론정책을 살펴보고 제주언론의 변화를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 활자미디어, 지상파 방송을 조명하는 전파미디어, 케이블TV와 인터넷뉴스 매체를 살펴보는 뉴미디어 분야로 나눠 도내 신문·방송의 발전 과정을 통해 지방 언론계의 변화를 51페이지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그날의 취재 현장’을 통해 생생한 취재후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제주 현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 논제와 토론글을 실었다.



또한 활동과 성과에서는 2002년 제1회부터 11회까지 열린 정책세미나를 통해 제주언론인클럽의 창립 정신과 일관된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작고 언론인의 발자취’ 편에서는 고영기, 고영일, 고춘택, 김규필, 김윤옥, 김종주, 오성찬, 이소택, 최현식, 하창곤, 허태현, 현호중, 홍성목, 홍순만씨 등 살아생전 취재현장을 누볐던 이들의 기자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문교(4·3평화재단 이사장) 전 제주언론인클럽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포켓 안에 묻어 두었던 취재 낙수(落穗), 훈훈한 체취를 남기고 앞서 떠난 작고(作故) 선배와 동료 언론인들의 생사의 활동도 제주언론사가 간수해야 할 귀중한 자료들”이라고 전제 한 뒤 “창립 이후 15년을 지나오면서 제주언론이 처하게 된 발자취만은 많은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지방언론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은 우리의 몫인 수밖에 없는 만큼, 제주언론인클럽이 제주 언론의 토양개선을 위한 책무를 재다짐하는 오늘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용복 팀장